



국립세종수목원

[반려 식물 무료 입양 프로젝트]

엽사이클 가드닝

반려 식물 이름 : *Aerides multiflora* Roxb.

우리수목원은 계절과 시즌에 맞추어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교체된 **전시식물**이 많은 바임을

완수하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반려인**을 기다립니다.

우리수목원에서 소중하게 키워진 식물을 반려로 입양

하신다면 여러분은 국립세종수목원의 가족입니다.



가장 진화한 식물, 난(Orchid)

1. '난'은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자생합니다.
 -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광범위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2. '난'의 종류는 약 30,000종이 있으며,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 종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난'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과 공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 나무에 붙어 살고, 다양한 모양의 꽃으로 곤충을 유혹하고, 곰팡이와 영양분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심고 관리하나요?

'난'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 여러해 동안 관상이 가능한 **다년생** 식물입니다. '아이리데스 속 난' 관리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열대아시아 원산이에요, 고온성 난으로 15도~35가 적정온도입니다.



나무에 달라 붙어사는 착생란이에요, 공기 중에 50% 이상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봄~여름에 개화하는 식물이에요, 분홍색 무늬의 꽃은 향기도 있습니다.



한 줄기가 계속 위로 자라는 단경성이에요, 줄기를 잘라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분양 받으신 *Aerides multiflora* Roxb. 에 대해

궁금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Q1 뿌리가 밖으로 나와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사방으로 뻗은 뿌리가 많으면 잘라주어도 되나요?

↳ 착생란의 특성상 뿌리가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기근 혹은 공기 뿌리라고 부릅니다. 벨라민이라는 스펀지 모양의 특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기중의 수분과 양분을 흡수, 저장합니다. 뿌리가 많다고 자르는 것은 좋지 않으며, 가슴기나 분무기로 공중 습도를 충분히 공급해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Q2 화분에 심어서 키울 수도 있나요? 아니면 계속 공중에 걸어서 키워야 하는건가요?

↳ 화분에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넉넉한 바스켓을 활용하면 용기에 담아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토양은 수태, 바크, 숯 등을 사용해서 뿌리 통풍이 잘 되도록 해야합니다.

Q3 실내에서 키우려면 빛이 잘드는 곳이어야 하나요?

↳ 아이리데스 속 식물은 빛을 많이 받아야 잘자라고 꽃도 잘 피기 때문에 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어야 합니다. 햇빛이 점차 강해지는 봄과 가을에는 창가 30cm 이내에서 키우는 것이 좋으며 여름에는 30~50% 차광을 해주어야 잎이 타지 않습니다.